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곡물가 상승으로 농가, 업체 동반 추락위기 사료기금안정제 도입 등 활로모색 절실

국제 사료원료 가격이 지난 2006년 11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사료업체와 농가들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국내 배합사료 원료의 실질 수입의존도는 95%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사료회사에서의 생산 비용중 원재료비 비중이 85%내외를 보이면서 국제가격의 변동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료회사로서는 자체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으며, 결국 이러한 가격 부담이 곧바로 농가로 전가되면서 국제 사료원료 가격상승은 업체와 농가들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료원료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던 지난 2006년 옥수수 가격은 톤당 143원을 기록했으나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2.3배가 뛰면서 8월 현재 톤당 338원을 보이고 있으며, 대두박도 2006년 톤당 229원에서 51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실제 농가에서의 사료구매가격을 보면 육계는 kg당 540원으로 2006년 11월 280원에 비해 92%, 산란계는 kg당 470원으로 2006년 11월 230원에 비해 무려 1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양계산물 생산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적자를 감수하고 농가의 고통을 함께 분담키로 했던 농협사료마저 지난 3월 이후 가격인상을 늦춰오다 결국 지난 7월 28일 18.9%를 인상시키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농가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원가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 없어 취한 조치라지만 농가들은 농협사료 불매운동까지 전개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분출시키기에 이르렀다.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들은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 토론회'에서도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사료구매지금을 지원해 주는 일시적인 미봉책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거나 해외 사료자원 개발사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우리와는 여건이 다르지만 이웃 일본에서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제도화 하여 효과

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에도 사료가격 등락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외사료 자원개발도 미국이 아닌 동남아, 러시아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합사료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의 어려움을 해외에서 극복하려고 해외진출에 앞다퉈 나섰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주춤해 있는 상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가로써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료로 인한 고가사료 시대에 적정사육밀도의 유지 등 사양관리 과정에서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겠다.

농장내 HACCP 적용 확대된다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양계산물 생산에 관심을

금년부터 HACCP 인증제도가 양계분야에 적용된 이후 지난 7월 충남 홍성에 위치한 GPS 농장이 국내 농장으로서 처음으로 HACCP 인증을 받으면서 농장내 HACCP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이후 전남 보성과 충남 아산의 대형 농장이 HACCP를 인증받는 등 많은 농장들이 HACCP 인증을 준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는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통칭하고 있다. HACCP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우주개발계획 중 우주인에게 무결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美 항공우주국(NASA)의 요청으로 식품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1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련내용을 마련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사료공장을 거쳐 2006년 3월에는 가축사육단계까지 HACCP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농장에서 시대에 순응하며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순간까지 다가왔다.

HACCP 인증을 원하는 농장은 지정 신청서를 인증기관(HACCP기준원, <http://www.ihaccp.or.kr>)에 신청하면 실사 등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 농장은 HACCP 인증을 받기위해 가까운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큰 비용부담 없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양계장에 도입하는데 있어서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무항생제, 유기축산, 등급제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난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업계에 혼돈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HACCP는 인증을 받는 것 보다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인 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언젠가 우리 양계산업이 가야할 길이라면 시작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할 것이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농가들에게 알리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농장내 HACCP 서막이 오른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하여

양계업계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채란업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자 채란인 대회 등 당면현안 돌파구에 안간힘

채란업계가 위기에 처한 업계를 살리기 위해 8월 29일 충남 유성 레전드 호텔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채란업계는 사상초유의 산란계 사육수수(6천만수)를 보이는가 하면 고유가와 더불어 세계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가들로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에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소비가 급감한 상태에서 과잉생산까지 겹치면서 불경기의 끝이 어디인지 암담한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계란유통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난가가 25일 현재 특란 개당 127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농장 거래가격은 이보다 35원 이하의 DC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개당 90원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 농장에서 생산비를 보면 사료가격 상승을 고려해 볼 때 최소 개당 120원의 생산원가가 산출되고 있다. 이는 농가에서 개당 30원씩 밀지고 생산하는 것인 만큼 5만수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산란율이 80%를 기록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에 120만원, 한 달이면 3,600만원씩 적자를 보면서 계란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농장규모를 늘려온 농가도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시발생 이후 2년여간의 호황으로 인해 금년에도 같은 현상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가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생산량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채란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 이번 대회는 산란 실용계 수급조절 방안, 산란계 자조금 사업추진 방안, 계란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 졌다. 수급조절은 부화장들이 함께 참여하여 적절한 종계를 사육하고 농가들이 닭의 수수를 줄여 쾌적한 환경에서 적정수수가 공급, 사육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자조금사업을 통한 홍보이다. 금년에는 비록 임의자조금으로 꾸려나가겠지만 내년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무자조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계란유통구조 개선이다. 수년 전부터 문제시되어 풀리지 않는 계란유통문제는 후장기, DC, 세일 등의 이름으로 시장에 물을 흐리고 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채란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